

한민족의 제천사상(祭天思想)과 미륵불(彌勒佛) 출현

【 침성대(瞻星臺)의 비밀】

흔히 우리민족을 단일민족이요 백의민족이라는 자부심이 한민족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민족사상의 저변에는 단군(檀君)이라고 하는 우리민족의 국조(國祖)가 자리 잡고 있다.

근래(近來)에 기독교(基督教)를 믿는 일부 몰지각(沒知識)한 사람들에 의해 단군상(檀君像)이 여러 곳에서 목이 잘리고 파괴(破壞)되는 수난(受難)을 겪고 있으나 불과 수십 년 전만 해도 우리 한국인들이 처음 맞는 교육기관인 초등학교에서부터 우리민족의 역사를 배움에 있어서 단군사상에 대해 배우고, 우리들의 부모님으로 전해 내려오는 단군할아버지의 모습을 상상해 보곤 하였던 것이다.

또 우리민족의 오래 전 옛날의 역사인 고조선을 세운 분이 단군이셨고 이로 말미암아 비로소 한반도에 국가적인 개념의 역사가 시작되었던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그런데 이러한 역사적인 실체의 주인공인 단군을 지금도 자세히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 이 분야에 대해 전문가가 아니면 그 이상의 알 거리가 없다는 것에 대해 우리는 안타까움을 느끼는 것이다. 지금부터 약 3천여 년 전에 국조인 단군께서 멀리 유라시아 대륙의 끝 부분인 이스라엘로부터 시리아와 이라크·이란·카스피해를 건너 우랄 알타이 산맥의 알타이지방에서 3백년을 머물다 중국의 북부를 넘어서 몽고 땅으로 이주하여 그곳에서 다시 100여 년을 지냈다. 그러므로 우리 민족은 몽고민족과 유사한 외모와 또한 세계적으로 우랄 알타이계라고 인류학적인 분류를 받고 있는 것이다.

그 후 또다시 동진(東進)하여 만주(滿洲)를 지나 한반도의 북부 즉 대동강유역에서 비로소 단군께서 홍익인간(弘益人間)의 이념(理念)을 근간으로 하는 고조선(古朝鮮)이 탄생되었다. 즉 평양 부근의 대동강 유역에서 고조선이 있었다는 기록을 역사책에서도 알 수 있지만 그 근처인 대동강유역에서 발견되는 유물인 기와장에서 고조선의 실체를 증명할 수 있는 것이다.

이 기와에 새겨진 문양은 처음 발견당시 즉 일제 때에는 이 기와에 새겨진 문양이 단순하게 그림으로만 알았으나 구세주께서 지금부터 40여 년 전에 이를 증거하시어서 당시 서울대학교에서 고대 히브리어를 연구한 신상훈박사로부터 분명한 고대 히브리어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받아 비로소 우리민족의 역사적인 실체가 드러나게 된 것이다.

최초의 국가인 고조선은 그 후 중국 대륙에도 문화적 종교적 그리고 정치적인 영향력이 막강했으나 시간이 흘러 언젠가는 기차조선 또는 위만조선으로 불리는 중국의 한족에 의해 멸망을 당하였고 여기서 붕괴된 주도세력들은 그 후 일부는 일본으로 건너갔으나 정착하지 못하고 멸망을 하였으며, 일부는 진한·마한·변한으로 분리되어 부족국가의 상태로 있

다가 후에 다시 신라(新羅)라고 하는 새로운 모습의 국가로 등장한다.

초기의 신라는 옛 국가였던 고조선의 사상과 이념을 그대로 부활시켰고 당시의 고구려와 백제와는 전혀 다른 형태의 문화를 계승, 발전시켜 훗날 한반도를 통일하여 우리가 훗날 통일신라라고 부르는 강대한 국가로 발전시켰던 것이다. 선덕여왕 신라 27대 여왕은 불교에 심취한 왕으로도 유명한 분이셨다.

특히 선덕여왕 당시에는 벌써 불교가 국교(國敎)로 확고하게 뿌리를 내리고 있었고 침성대 역시 지난 선덕여왕조 이전부터 제천의식을 행하였던 기록에 비추어 불교사상과 고대로부터 이어져 내려온 제천의식이 함께 어우러진 것을 볼 수가 있다.



현재의 침성대 모습(남쪽정문에서 본모습)

불교가 들어온 초기 신라에 속하는 왕들 중 신라 27대조 선덕여왕(善德女王)당시에 건축되었다는 침성대(瞻星臺)는 선덕여왕이 죽은 이듬해에 비로소 완성되었다.

침성대는 높이 9.108m, 밑지름 4.93m, 윗지름 2.85m, 밑에서 4.16m 되는 곳에 정남쪽으로 한 변의 길이가 1m인 정사각형의 창문을 낸 병모양의 구조이다. 침성대에 대한 기록은 일연이 기록한 『삼국유사』에 나와 있다. “선덕여왕 대에 돌을 다듬어서 침성대를 쌓았다는 기록이 있다.”고 했다.

그런데 이 침성대가 불교에서 주장하는 최고의 이상향으로 제시되는 수미산(須彌山)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이들이 별로 없다는 것이다.

즉 침성대는 처음부터 고대로부터 우리 민족들이 행하였던 제천사상과 불교의 사상이 함께 어우러져 축조된 신전(神殿)의 개념이었으며 고도의 예술적 걸작품이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침성대는 그 외형부터 불교의 수미산도(須彌山圖)를 참조하여 보는 것과 같이 모양이 같은 것이다.

즉 이러한 사실이 지금의 모습을 갖춘 침성대의 축조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저변의 사상 역시 불교의 수미산도와 우리 민족의 제천 의식과 동일한 것이다. 이것을 석가모니는 불경에 남겼다.

증일아함경44권(增壹阿含經卷第四十四) 십불선품(十不善品)第四十八(三) 爾時。彌勒菩薩於兜率天。觀察父母不老不少。便降神下應。 이시。미륵보살어도 출전. 관찰부모부노·부소. 변강신하응.

이때 미륵보살이 도솔전에서 부모를 살펴보니 늙지도 않고 작지도 않았으니 곧 신으로 하강하여 우측 옆구리로 태어났다.

침성대의 제일 윗부분, 즉 정자석은 그 모양이 우물『井』자의 모습으로 되어 있다. 이러한 사실은 침성대의 제일 상층인 28층에 우물을 상징하는 정자석을 놓은 것은 『하늘의 우물(天井)』이라는 뜻이며 하늘의 우물을 통하여 미래의 구세주인



불교에서 최고의 이상향의 상징인 수미산도

주인공께서 오실 것을 알고 침성대를 건설하였던 것이다. 여기에 증거로 제시할 수 있는 자료는 앞장의 수미산의 모습을 그린 정상을 자세히 살펴보면 33천인 도



간다라 석판 ‘탄생’ 장면에는 마야 왕비의 오른쪽 옆구리로 태어나는 싯다르타 태자(금빛 모습)의 모습이 잘 묘사되어 있다. 두 팔을 앞으로 쭉 내밀고 있는 모습은 ‘어머니의 자궁에서 나올 때 정결하여 계단에서 내려오는 것처럼 손발을 쭉 뻗어 나왔다’는 불전 경전의 내용을 잘 반영한 것이다. 여러 경전에서 싯다르타 태자가 태어날 때 인간보다 먼저 신들이 그를 받았다는 내용이 등장하는데 지금 싯다르타 태자를 받고 있는 인물은 다른 아닌 천신인 제석천이다. (유근자 박사 한국미술사연구소 연구원 ▲2~3세기, 간다라, 파키스탄 라호르박물관)

솔전의 내원궁이 보이고 이 내원궁에 있는 용화수(龍華樹)가 보이는데 미래의 부처님이신 미륵부처님께서 이 용화수 아래에서 도를 닦으신 후 인간계(人間界)로 하강(下降)하여 강림(降臨)하시는데 이때는 수미산 정상에 한 가운데 있는 수미산정(須彌山井)을 통하여 강림하신다고 한다.

이런 이치로 침성대는 전체의 모습이 수미산의 모양을 상징하는 형태로 축조되었으며 수미산의 정상에 있는 천정(天

井), 즉 수미산정(須彌山井)을 상징하는 형태가 침성대에서는 정자석이요 정자석이 곧 수미산의 우물을 상징하는 것으로 우물 정(井)자 형태로 얹힌 것이다.

또한 사진 우측의 침성대의 북쪽 면을 자세히 보면 기초석을 뺀 나머지부터 정자석까지 탑은 28층으로 돌로 쌓아 이루어져 있는데 이것은 28수(筭) 즉 별을 상징하는데 한자에서 별이라는 것이 곧 북두칠성을 의미하므로 침성대의 외관은 별의 상징인 28층으로 축조된 것이다.

또 침성대의 출구는 남쪽을 향하여 오직 한곳만 있다. 이는 현재의 대통령 관저가 있는 청와대나 조선조의 왕궁이나 큰 사찰의 대웅전 등 절대 권력 내지는 권위를 상징하는 이 모든 것은 북쪽을 향해 배치가 된다. 그리고 사극이나 영화에서 보면 신하된 자들 중 귀양이나 외지에 근무하는 관리들이 임금의 어명을 받을 때는 북향재배(北向再拜), 즉 북쪽을 향해 절을 한 후 어명을 받듯이 우주의 절대자의 존재가 인간계로 하강하는데 북쪽에서 나오시므로 출구를 남쪽으로 만든 것이다.

그렇다면 불교에서 말하는 33천은 어떻게 설명을 하여야 할까? 사진 우측 아래의 사진을 자세히 살펴보면 남쪽 출구가 보이는데 출구가 되는 입구의 아래 변부터 출구의 위가 되는 곳까지 돌은 5층으로 쌓여 있다.

역학(易學)에서 『5(五)』라고 하는 숫자는 구세주(救世主) 부처님(佛)을 상징하며 이러한 존재들이 거하는 집이나 거처

또한 색상(色相)으로는 보라색(紫色)을 상징으로 한다. 그러므로 구세주는 『5』라고 하는 숫자를 가지고 오프로 『5 + 28 = 33』이 비로소 완성이 된다. 그리고 이 숫자 『33(三十三)』 곧 숫자 『삼(三)』은 하늘(天)을 상징하는 것이요 숫자 『10(十)』은 “이루었다(成)”라는 의미와 함께 구세주(하느님 · 부처님)을 상징하는 숫자이며 다시 또 숫자 『3(三)』이 있을 때는 역시 하늘(天)을 상징하지만 숫자 『10(十)』을 전후 하여 있을 때는 선천



침성대의 북쪽면 모습(좌)

(先天)과 후천(後天)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33천이란 하늘이 33개가 불교의 의미도 있지만 역리에서 선천과 후천을 함께 이루어 무극(無極)에서 태극(太極)으로 되돌아가서 본래의 모습으로 완성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보면 침성대의 한자인 침성대(瞻星臺)는 흔히 말하길 『불침(佛)별 성(星)돈 대(臺)』라고 하는 한자 풀이로 해석을 하여 “별을 바라보는 제단”이다 라고 풀이를 하여 침성대가 천문대라고 말할 하지만 사실은 『우러러 볼 침(瞻)별 성』자로 이해를 하여 『별을 우러러보는 제단』이라는 뜻이다.

별을 『우러러본다』는 것은 무슨 뜻이었을까? 당시의 신라 때에는 북두칠성(北斗七星)을 향해 입추(立秋) 다음의 첫 진일(辰日)에 농업을 관장하는 북두칠성을 향해 신라의 국왕이 제사장(祭司長)이 되어 친히 제사를 지냈는데 북두칠성은 영생(永生)을 기원하는 사상의 상징이다. 또 여기서 입추(立秋)의 다음 첫 진일(辰日)은 간지(干支)에서 보면 『진(辰)』은 『북두성진(北斗星辰)을 말한다』고 하였고 북(北)은 곧 천추(天樞)를 의미한다. 여기서 천추란 『추성(樞星)을 의미하는데 추성이 곧 북두칠성을 뜻하며 하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근본(根本)』이라고 하는 것이다.

우리 조상들은 하늘에 제사를 지내에 있어 가장 중요한 별이요 으뜸이고 모든 우주의 근본이라고 생각했던 북두칠성을 향하여 입추의 별(辰)날에 제사를 지냈던 것이다. 그러므로 침성(瞻星)이라는 말도 『별을 관측한다』는 뜻이 아니라 『별을 우러러본다』는 사전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

침(瞻)은 『우러러본다』는 뜻이다. 성(星)은 단순한 별을 뜻하는 것이 아니고 역리에서 별수인 28수(筭)를 뜻하는 것이므로 단순한 세상의 별이 아닌 북두칠성을 상징하는데 북두칠성은 이 세상을 구원하실 구세주를 상징하는 것이다.



침성대의 남쪽에 있는 출구모습(우하) 우물 정(井) 모습의 정자석(우상)

이러한 것들은 훗날 이 세상의 죄를 모두 제거하고 인류를 사망으로 구원하실 주인공인 구세주를 기다리는 우리 조상님들의 지혜를 엿볼 수 있다. 즉 구세주는 가슴에 북두칠성의 별점을 가지고 1931년 신미생(辛未生)의 양띠와 양의 달이



파주 서곡리 고려 벽화묘의 3수와 7수. 북두칠성이 뚜렷하게 보인다.

되는 음력 6월달 그리고 별을 상징하는 28일 새벽 4시에 김포의 감정리(坎井里)에서 이 세상에 오시기 때문에 옛날의 우리 조상들은 이러한 주인공이 이 세상에 오실 것을 미리 알고 건축을 하였으며, 감정(坎井)이란 지명은 곧 易學에서 감(坎)은 하늘을 상징하므로 감정(坎井)은 곧 『하늘의 우물』을 상징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 조상들은 후손들에게 이러한 사실을 잊지 말고 오시는 때를 잘 깨달아 구세주를 만나서 영생의 큰 축복을 받으라는 의미로써 남겨놓은 우리민족의 지혜의 유산인 것이다.

이와 같이 우리 조상들은 구세주의 상징인 별을 우러러보았지 꿰뚫어 본 것이 아니었다.

그리고 이러한 종교적이고 민족의 상징적인 기능을 염두에 두고서 강화도의 마니산의 참성단, 평양의 참성단과 같이 하늘에 제사를 지내던 제단을 지어놓고 구세주의 강림을 하숙고대하였던 것이다. 또 성경에서 구세주를 『빛나는 새벽 별』이라고 하였고 불경도 미래에 중생을 구원하는 미륵불은 『하늘의 밝은 별(明星)』이라고 하였으며 우리민족의 예언서인 격암유록(格庵遺錄)에도 『길성조림(吉星照臨)』이라 명시하였던 것이다.*

明鐘 E-mail : wuryhana@gmail.com

본부제단 032-343-9981~2

전국제단 및 해외제단 연락처

역곡제단 : (032)343-9981-2
수원제단 : (031)236-8465
안성제단 : (031) 673-4635
평택제단 : (010)5695-8971
부산제단 : (051)863-6307
영도제단 : 010-6692-7582

김해제단 : (055)327-2072
대구제단 : 010-6530-7909
마산제단 : (055)241-1161
진주제단 : (055)745-9228
진해제단 : (055)544-7464
영천제단 : (054)333-7121

사천제단 : (055)855-4270
순천제단 : (061)744-8007
정읍제단 : 010-8628-2758
군산제단 : (063)461-3491
대전제단 : (042)522-1560
청주제단 : 010-5484-0447

충주제단 : 010-9980-5805
양평제단 : 010-2945-8254
橫浜祭壇 : (045)489-9343
神戸祭壇 : (078)862-9522
下關祭壇 : (0832)32-1988

大阪祭壇 : (06)6451-3914
London : (0208)894-1075
Sydney : (006)0415-727-001

원래 사람은 하나님이었습니다 .
그러므로 사람은 하나님이 될 수 있습니다 .